

사업장현장점검결과 의견서 채택의견

의안 번호	9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11. 16

발 의 자 : 배도순 의원
외2인

1. 제안이유

-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추진중인 관내 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추진상의 문제점과 느낀점에 대하여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건실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촉구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사업장별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지역과 항구대책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, 교통이 불편한 지역, 안전조치 시설이 미흡한 지역 등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함

- 불 입 : 사업장 현장점검결과 의견서 채택(안) 1부. 끝.

사업장 현장점검결과 의견서(안)



- 화원읍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공사는 그 간 장소선정에 있어 당초 계획한 곳에서 현재의 위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 도로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은 곳에 용도를 변경 설치하는 바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검토가 충분치 못한 점으로 여겨지며, 양쪽 코너부분은 반원경으로 충분한 공간확보가 요구되나 한쪽은 좁은 관계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바 이에 따른 대책도 요구됩니다.
- 다음은 명곡테니스장 주차장부지 매입 추진문제는 매입하지 못한 3필지 2,258㎡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매입하여 테니스장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예산이 더 이상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.
- 다음, 옥포교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전 지주들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추진한 사업장으로 좋은 사례로 여겨지나 동절기를 앞두고 있어 공사감독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하여 금년도 계획분을 잘 마무리 하여야겠습니다.
- 다음은 달성광산 폐수처리장 보수공사는 대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신천과도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서 원활한 광독수 처리시설 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국비로 어렵게 확보한 만큼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사후 관리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음 근로복지관은 건축 전면 타일마감재로 할 경우 관리상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, 부지에 걸쳐져 있는 옆 필지의 가건물이 정비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.

- 현풍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많은 국,시비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며, 하상 토사를 준설하면서 사용가능한 자재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예산절감과 신축성 있는 공사마무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바, 타 사업장에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, 하천단면이 좁으므로 공작물 및 주변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물은 가급적 최소화함으로써 우수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.
- 차천삼거리 도로 선형개량사업은 교통개선 특별회계 국비예산을 어렵게 확보한 만큼 유가지역 주민과 유가사, 비슬산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주변지역 주민들과 조속한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
- 창리고 가설공사는 화산마을 진입로역할과 농로역할을 하는 지점에 설치되는 교량으로서 교량의 폭이 5m로 가설되고 농로폭은 3~4m로 사실상 교량이 설치되더라도 농로길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어려우므로 차량교행 가능한 대책이 요구됩니다.
- 낙동강 대암3제 수해복구공사는 공사완료 후 제방내에 거주하는 5가구와 농경지 3ha정도가 내수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므로 사전 재해 예방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오설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낙동강변 위주로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마을의 오수를 원활히 처리함으로써 낙동강 수질개선은 물론 개별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어지므로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.

【사업장현장점검결과의견서채택의견】

- 裴道淳議員 外 2人 發議-

서 명 날 인 서

의 원 명	서 명	날 인
배 도 순	배도순	
박 노 설	박노설	
김 삼 도	김삼도	